

KBS불교연구원택스님 초청법회

KBS불교연구회(회장 정종철)는 3월 30일 본관 회의실에서 원택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회원 및 직원 60여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원택스님은 성철스님의 일화를 들려주며 "조발심을 되새겨 바른 삶을 살아가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동참자들이 원택스님의 법문을 경청하고 있다.



경찰청 불교회 교리강습

경찰청 경찰불교회(회장 박재진)는 4일 경승실 법당에서 조계종 포교원 주경스님을 초청해 '불자의 기본 예절'을 주제로 기초 교리 강습법회를 봉행했다. 경찰불교회는 회원들의 기초교리 강습을 위해 주경스님으로부터 매월 2회씩 법문을 듣기로 했다. 주경스님이 동참자들에게 불교예절을 설명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포교 역점”

청주 운불련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봉행

더 넓은 법당 마련, 놀이·교육공간 활용



◀청주 운불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어린이·청소년포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2일 청주운불련 법당에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법회 모습.

한국전기기사불자연합회 청주지역회(회장 류승준, 이하 청주 운불련)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적극 나선다. 청주 운불련은 현 법당을 넓은 공간으로 이전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인근 어린이는 물론 회원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놀이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대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새롭게 펼쳐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 포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2일 창립 10주년 기념법회에서 밝혔다. 류승준 회장은 "창립 초기 50여명으로 마련한 법당이 회원들의 증가로

인해 법회 공간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100여명 규모의 법당을 마련, 원만한 법회 진행은 물론 공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 활용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또 "창립 10년 동안 각종 봉사활동과 장학사업 등 대외사업과 조직기반을 탄탄히 다져온 결과 운불련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만큼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전기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 이하 운불련)도 3월 31일부터 1박2일 동안 예산 수덕사에서 수련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내실있는 조직운영을 통해 거리포교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운불련은 회원 교육 테이프 지원사업과 지역회, 회원 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아동,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층에 대한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회간 교류 활동 강화와 타 실행단체와의 신행 정보 교류 등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a.com

“믿음 심어주는 불교돼야”

박찬주 법제처장



"불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는다면 불자라고 할 수 있나. 현재의 한국불교 풍토는 지나치게 자력신앙만을 강요하다보니 의지처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명은 해룡. 당시 사상강좌나 경전 강독 등을 통해 불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불교에 대한 신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박처장은 서울 양재동 구룡사 정우스님과 각별한 교분을 나누는 사이다. 89년 강남으로 이사한 후 부인 강연련 여사와 함께 다니기 시작한 곳이 구룡사였다. 이때의 인연으로 정우스님과 깊은 교민까지 될 수 있는 사이가 됐다.

박처장은 "열정만 있었을 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서 스스로를 '실패한 불자'라고 겸손해 한다. 깊은 신심을 지니지 못했다는 뜻의 간접 표현인 셈이다. 요즘에는 바른 일과에 쫓겨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

매일 108배·금강경독송 생활화

대불련 활동, 대학때 법명도 받아

국불교가 불자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시절 불교화생회 활동을 통해 남다른 열정을 지니고 신행활동을 펼쳤지만, 다량의 지식을 쌓는데 그쳤다는 것.

박처장은 "진실로 기도하고 염원하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확신을 잘 때 불교에 대한 신심도 깊어진다"며 "현재의 한국불교가 이같은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문했다. 이는 한국불교가 선불교적으로 흐르는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처장은 대불련에서 사상강좌 등을 주관하며 기본적 교의를 습득했다. 대불련 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지만, 매일 108배와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하기도 했다. 특히 법회경의 깊고 요묘한 교의에 매료돼 50회 이상 읽는 등 부처님 말씀을 탐독했다. 그는 해석된 경전 보다는 원문 경전을 읽어 왔다. "자의적으로 해석된 경전은 불자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소신 때 문이다.

박처장은 또 한국불교계가 전반적으로 대승불교가 소승불교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과 조사선만을 강조하는 풍토가 바뀌어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네 것만 강조하다 보면 잃는 것도 많지 않겠느냐는 것이 박찬주 처장의 생각이다.

금주의 법회

- 11일 △현대석유화학 현불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서산 해월사
- 11일 △경기도청 불자회 정기법회=오후 6시 30분 수원 봉영사 △부산시청 불자회 정기법회=오후 7시 부산 서대신동 보타원 △농협중앙회 불자회 정기법회=오후 6시 30분 본관 소회의실 △구미온전불자회 성지순례=강화 전등사·보문사
- 13일 △서초반야회 성지순례=영주 부석사·봉정사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 연합수련회=합천 해인사 △한빛은행 부산 불자회 정기법회=오후 5시 부산 영주암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 수계법회=오후 3시 종합운동장역 법당
- 14일 △대한중석초경 석불회 성지순례=순천 송광사
- 15일 △동두천시청 삼보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동두천 보문사 △수원법조인불자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수원 영통만야사

불교계 IT 아이템 보고

KT 법인영업단 박균철 단장



"불교계의 IT 관련 아이템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있어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인식을 넘어 민족문화의 차원에서 개발해야 할 콘텐츠도 많고 전통사찰이 갖는 관광과 문화 상품적 가치도 큼니다. 전통수행의 경우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과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좋은 콘텐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은 기반을 가공하여 세계화 하는데 있어 관련자료의 전자화를 통한 다양한 아이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불교계의 정보화 향상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KT(한국통신)의 법인 영업단 박균철 단장은 3월 25일 '불교정보화 실태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와 '불교계 정

보화 사업 추진 협정'을 체결하고 불교계의 정보화 사업에 KT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단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불교계 정보화의 현주소를 파악해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불교가 민족문화를 선도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IT분야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면 KT는 시설 구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전남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사람이 초고속인터넷을 설치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다"는 박단장은 신중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연태 기자

의료봉사로 불심다지기

병원불자련·보현회, 시흥·광주서 시술

의료인불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불심을 담은 인술을 베푼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와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보현회는 21일과 20일 시흥해명양로원, 보육원과 광주 나눔의 집에서 각각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병원불자련(회장 김주호)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해명양로원과 보육원,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과, 안과, 치과, 물리치료, 한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불자회는 국립서울정신병원, 경희의료원, 경찰병원, 한일병원, 국립의료원,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춘천정신병원 등이다.

동국대 강남한방병원 보현회(회장 구병수)도 광주 나눔의집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한방진료활동을 펼친다. 보현회는 나눔의집에서 매일 의료봉

사활동을 펼쳐 위안부 할머니들과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병원불자련 임종승 총무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의료봉사를 베푸는 일은 의료인불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진료를 받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부처님의 자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불자회 창립 1주년 법회

해병대불자회(회장 김홍국)는 21일 서울 봉은사에서 창립 1주년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기념법회와 불자련에 인축하공연 등이 마련된다. 김홍국 회장은 "해병정신과 신행활동을 어우른 군포교, 사회봉사, 환경보호운동 등을 펼쳐 불교의 위상을 드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찰 남골탑. 이제 무한21이 함께 하겠습니다

- ◆ 우리 모두는 불자들입니다.
- ◆ 스님과 불자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 ◆ 스님과 불자를 믿음과 정성으로 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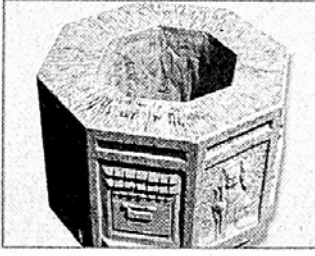
무한21 영탑은..

1. 결로 방지 및 통풍에 역점을 두어 제작.
2. 최상의 품질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
3. 사찰 신도관리 프로그램 무료지원.
4.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관리.
5. 남골탑 분양관련 제반업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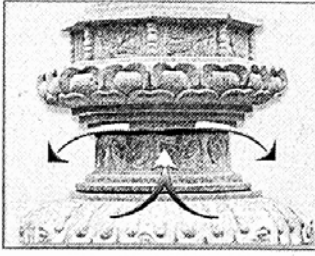
전통 불교미술 방식은 그대로 계승한 8각형 남골탑



편리한 개폐식 봉분실



탑신부 내부의 중앙 유품실



결로방지 및 신속한 통풍구조



불교장래 문화를 선도하는 (주)무한 21. 143-823 서울 광진구 구의 1동 223-65호 동영빌딩 3층. 전화: 02)447-8847~8 팩스: 02)447-7071 www.muhan21.com